

신촌파랑고래

다시 청춘을 담다

이치훈

건축사사무소 SoA(주)

공동대표

개요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건축면적	279.33m ²
연면적	815.952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포스트텐션
주요재료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 유리
최고높이	13.55m
설계사	건축사사무소 SoA(주)
설계팀	강예린, 이치훈, 이재원, 강혜원
구조	박병순(터구조)
파사드컨설턴트	김나리(VSA korea)
조경 및 공원 설계	최영준(Lab D+H)
토목	김종삼(누리 엔지니어링)
기계 전기	이종택(유성기술단)
건축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플렉스 광장에서 본 전경



창천문화공원 서측 도서리에 자리잡은 건물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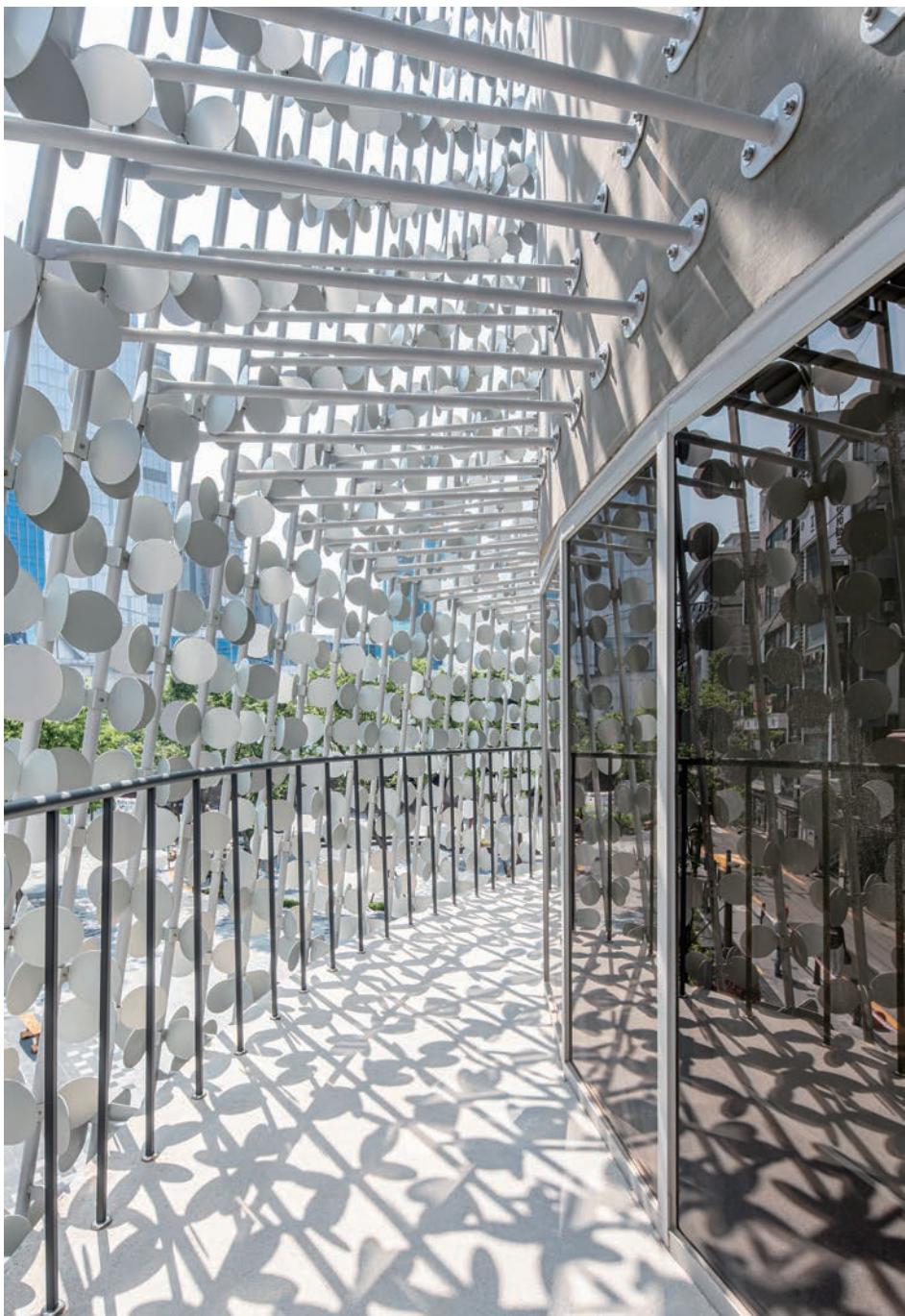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촌이 선정되었다.
2015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지역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의 전문가와
주민, 공공기관이 축을 이룬
거버넌스를 통해서 몇 가지
거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신촌 ‘파랑고래’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의 문화적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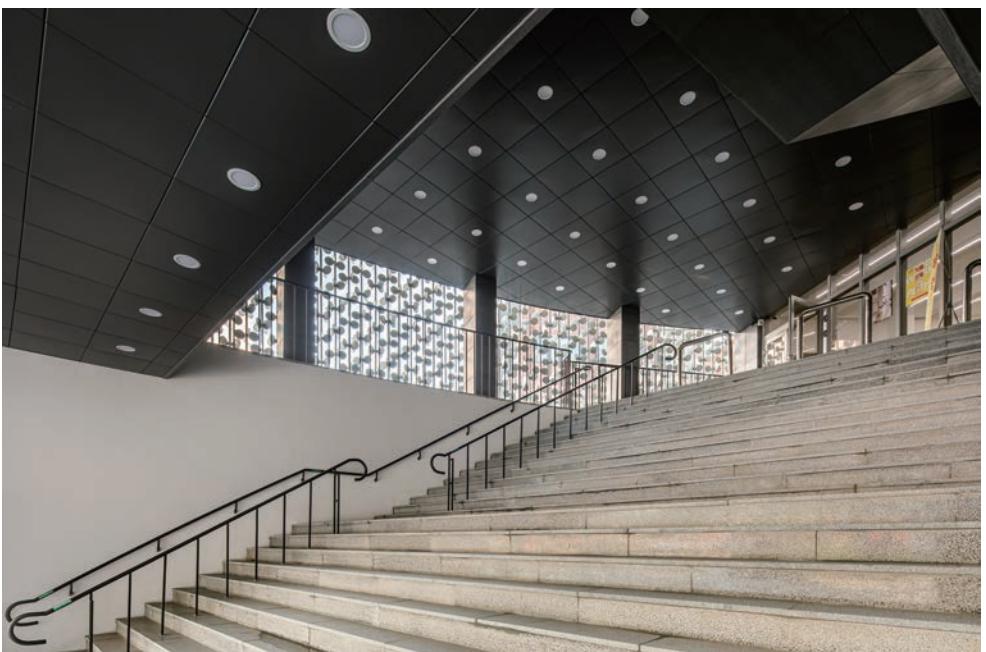
공원을 향해 들려진 입구



상 각도에 따라 다르게 빛을 반사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
하 건물 내부에서 바라본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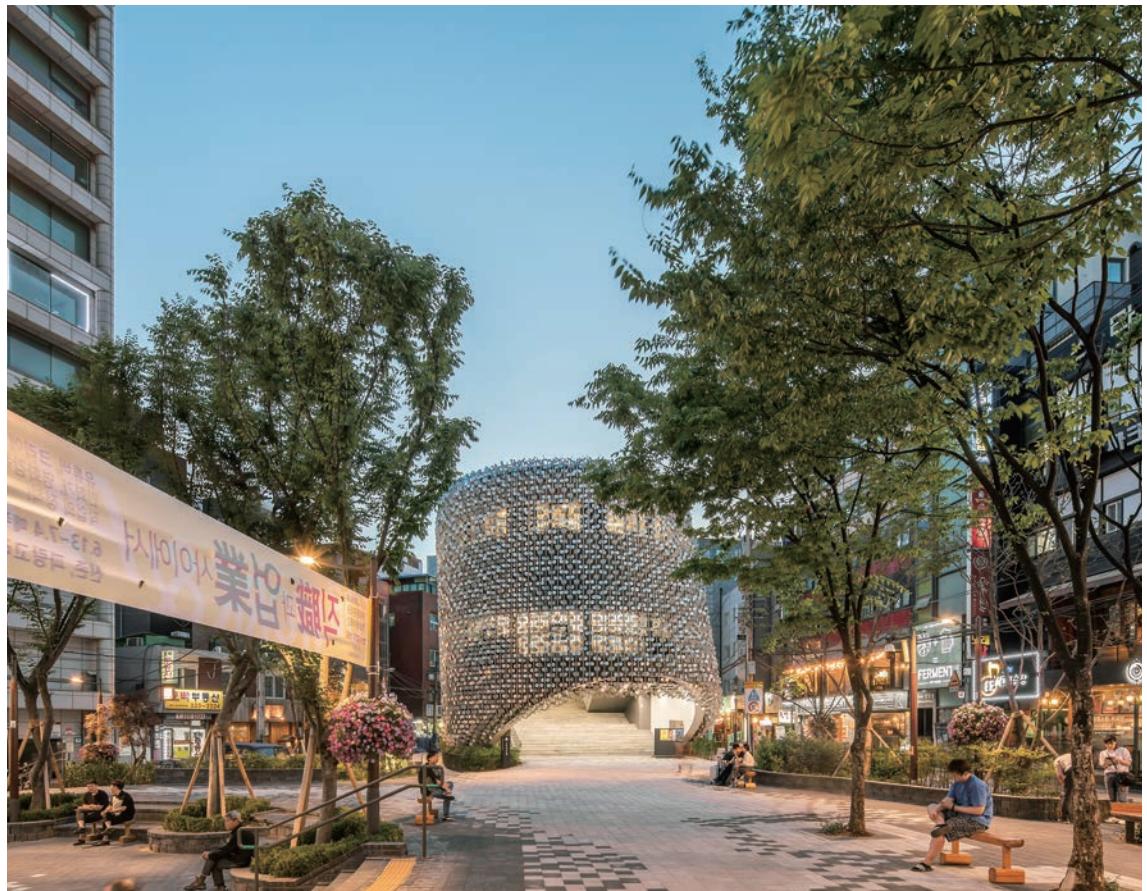
건물의 이중외피와 골조 사이의 테라스



상 건물 내부에서 느껴지는 이중 외피
하 공원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식 객석

건축이 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축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요소, 즉 벽·기둥·지붕·창문 등을 드러내지 않고 수공예적으로 만들어진 파사드로 건물 전체를 감싸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는 공원 안에 균질한 외피를 가진 하나의 둉어리처럼 보이고, 가까이에서는 건축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호기심을 자아내는 대상이 된다.

©texture on texture



상업공간 사이에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는 건축

다시 젊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

신촌은 서울의 대표적 대학가이다. 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서강대 등의 종합대학이 밀집해있다. 1980년대에는 포크로 대변되는 청년문화의 생산적 활동의 중심지였고, 서울의 젊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의 거점이기도 하였기에 1980년대의 신촌은 서울 안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에너지가 높은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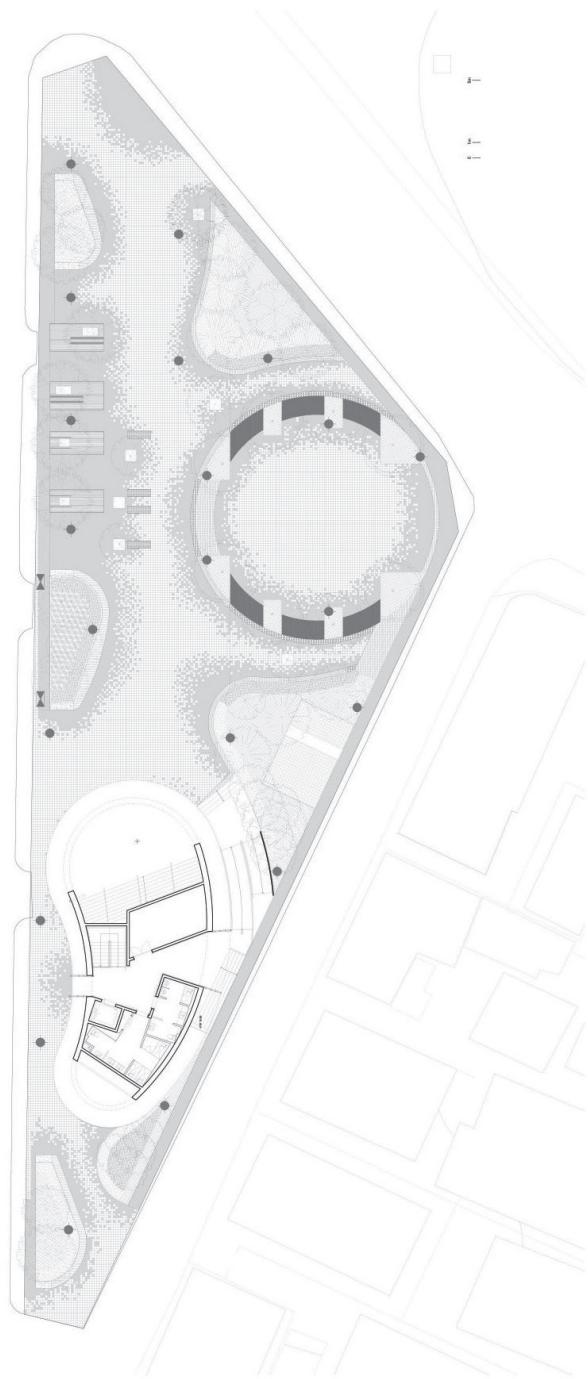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자본이 장소를 잠식하면서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에 들어선다. 2005년에는 신촌 최고의 명물이던 독수리다방이 33년 만에 폐업하고 신촌문고와 녹색극장이 문을 닫았다. 신촌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던 문화공간들이 점차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카페나 쇼핑 시설로 대체되었다. 자생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색깔이 대형 상업자본의 풍경에 잠식 당하는 도시경관의 변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도 명목을 이어온 오래된 공간은 40대가 된 1990년대 학번들이 찾는 추억의 테마파크로 박제되어 있고 신촌은 더 이상 청년문화의 상징도, 새로운 문화적 생산의 에너지도 찾아보기 힘든 장소가 되었다.

대학과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도 흐릿해지고, 상인과 주민들 사이의 교류도 약해졌다. 대학이 기숙사와 대학내 편의시설을 늘림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외부에서 하던 소비활동도 축소되었다. 자연스럽게 대학과 지역의 교류가 축소되고, 지역의 경제적 사정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신촌은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신촌동 자치회관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지역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전문가와 주민, 공공기관이 축을 이룬 거버넌스를 통해서 몇 가지 거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신촌 ‘파랑고래’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의 문화적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상 유플렉스 광장에서 본 전경
하 왕천문화공원 서측 모서리에
자리잡은 건물의 전경



공원 배치도와 1층 평면도

문화적인 생산력을 잃고 상업적으로도 고유의 활력을 잃어버린 장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건축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활기는 그 장소가 가진 물리적 조건이나 지역의 구성원, 지역에 투자된 자본의 유형, 문화적 생산행위의 산업적 구조 등과 같은 다중적 인자들로부터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파랑고래는 침체되고 슬럼화된 동네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줄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었다.

공원과 건축의 관계: 공원을 무대로 만드는 건축의 배치와 ‘중간영역’의 설정

‘파랑고래’ 사업의 초기 공식 명칭은 ‘신촌 청년문화 전진기지’였다. 서울의 대표적 대학가라는 오래된 장소성을 도시재생의 주요한 테마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상업적으로 쇠락하였지만 여전히 청년인구가 가장 밀집된 장소이기에 청년들의 문화적인 생산행위를 지원함으로써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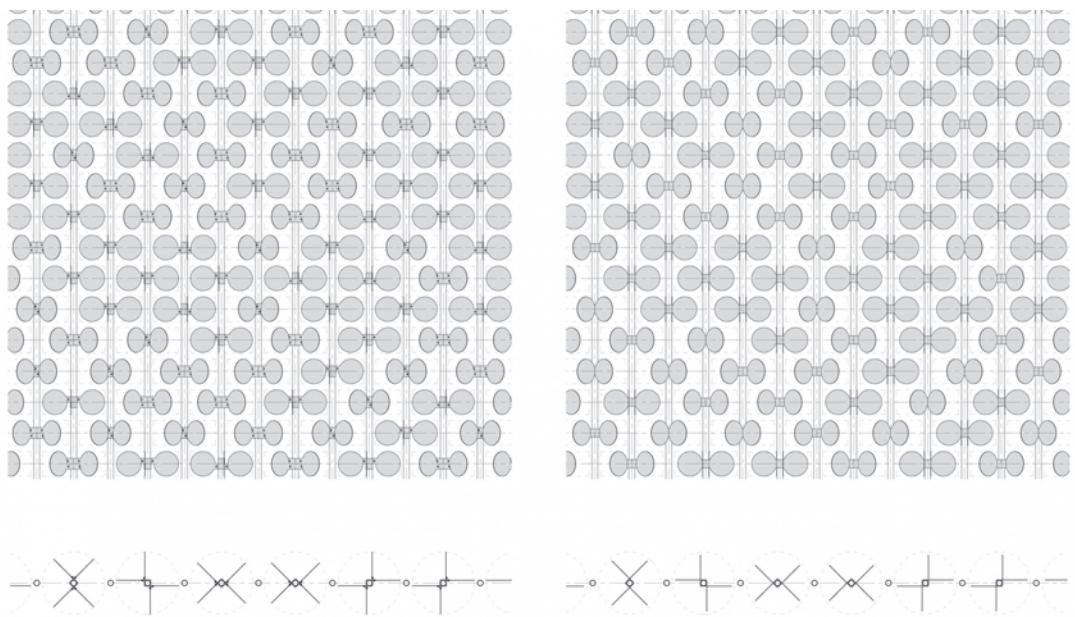
1980년대 신촌의 청년문화가 민주화의 역사적 이행과정에서 저항정신을 담은 대중문화의 형태로 분출되었다면, 지금의 청년문화는 문화적 소비와 결합된 콘텐츠의 생산이라는 경향을 띠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과 문화적 실천행위들로 표출된다. 특히 2014년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도시의 외부공간이 문화활동의 무대로 기능하게 되었다. 창천문화공원은 이런 맥락에서 도시재생의 중요한 가능성을 담지한다.

창천문화공원은 신촌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연세로와 명물길의 교차로에 인접해 있다. 교차로에는 신촌역과 현대백화점, 유플렉스라는 대형 쇼핑센터가 공유하는 출구가 위치해 연세로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이벤트도 빈번하다. 그러나 신촌의 유일한 공원이자 오픈스페이스임에도 공원의 형태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외부의 문화활동들은 공원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창천문화공원을 활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로서 공원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재생사업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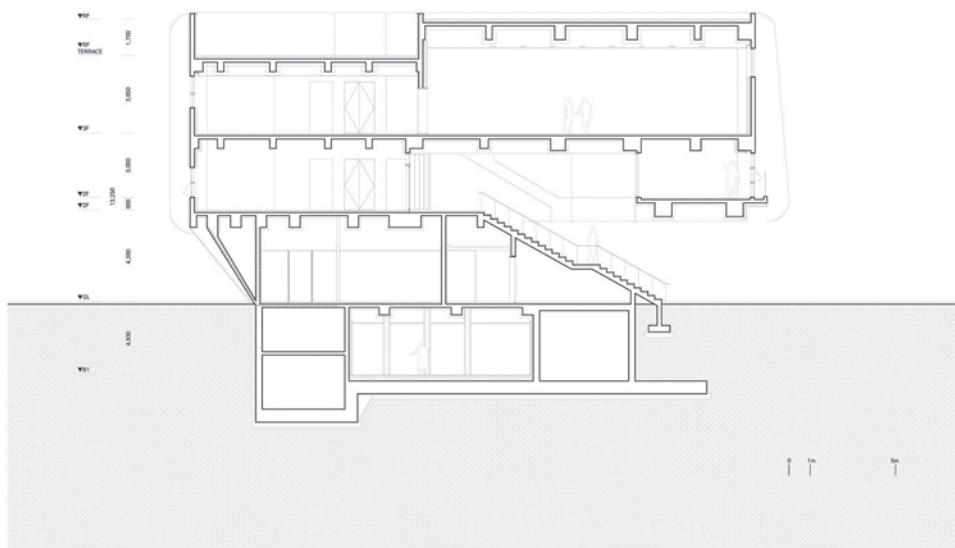
◎
건축
설계
팀



상 공원을 향해 들려진 입구
하 건물 내부에서 바라본 입구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 상세



공원 방향 횡단면도

이를 위해 공원과 건축의 경계를 허물어 연세로에서 창천문화공원, 파랑고래로 이어지는 문화활동의 흐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층부를 반외부의 중간영역으로 설정하고 공원에 연속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층의 공원과 접하는 입구 부분을 포스트텐션 공법으로 시공하여 10m 캔틸레버로 들어올렸다. 공원시설로서 공중화장실을 서측 모서리로 배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유플렉스 교차로를 향해 들어올려진 입구는 2층의 공용공간으로 넓은 계단을 통해 연결되고 반대로 공원 방향의 개석으로 활용한다. 계단을 개석처럼 이용한다면 공원은 전체가 무대처럼 활용될 수 있는 위계가 설정된 것이다.

건물이 띄워진 천장에는 공원의 바닥을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음향 설비를 배치하여 각종 행사나 공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시 공원 심의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비워져 있음에도 도시활동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 조건을 극복하고 도시활동의 중심을 창천공원 내부로 옮겨오겠다고 적극 설득해 어렵사리 공원 내 건축행위에 대한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재생사업은 건축물 하나의 계획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관계부서 간의 공감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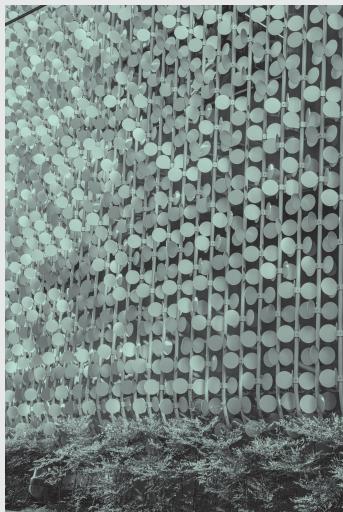
건물(building) 되지 않기: 패빌리온과 건물 사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프로젝트는 대개 단순히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얻어지기를 요구받는다. 이때 건축가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 ‘빌바오 이펙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이 단순히 맥락주의 프로그램의 기능적 정합성을 풀어내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파랑고래는 이를 위해 공원과의 관계뿐 아니라 새로 조성될 건축물의 존재감, 물성, 건축이 도시에 대응하는 관습적 태도와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건물 되지 않기’ 혹은 ‘건축과 패빌리온 사이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새로운 화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texture on texture



상 공원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식 개석
중 건물 내부에서 느껴지는 이중 외피
하 건물의 이중외피와 골조 사이의 테라스



©texture on texture



상 각도에따라다르게 빛을 반사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
하 상업공간 사이에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는 건축

건축이 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축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요소, 즉 벽·기둥·지붕·창문 등을 드러내지 않고 수공예적으로 만들어진 파사드로 건물 전체를 감싸도록 하였다. 이는 밀집된 상업지역 내에 기존 도시의 조건과 유사한 또 하나의 건물로 조성되어 맥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완전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는 공원 안에 균질한 외피를 가진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고, 가까이에서는 건축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호기심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건축은 세장한(가늘고 긴) 형태의 도시공원 구석에 위치하는 배치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북으로는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시설과 면해 있다. 건축의 볼륨은 기존 상업시설을 남북으로 면하게 되어 좁고 긴 가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상업공간의 광고판으로 덮인 경관에 대해 신축건물이 새로운 도시적 맥락으로 제안된다. 입면에서 건축물의 층 구분과 창과 같은 요소를 없애면서 건축물이 아닌 파빌리온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부착된 각도가 모두 달라 불균질하게 빛을 반사하는 1만 5,000개의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을 세 가지 타입으로 합리화하여 외피의 주요 재료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골조와 공간의 체계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 혹은 연속적이지만 다각적인 질감을 가진 하나의 오브제로서 보이도록 하였다. 밤이 되어 실내조명이 켜질 때 내부 공간의 체계가 암시적으로 드러나며 건물(빌딩)이 된다.